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11월 12일



🏠 ▶ 궁금한 우리말 ▶ 안녕! 우리말

“내일까지 기획서 와꾸 좀 간지나게 잡아 봐.”

“점심밥값은 분빠이하자.”

“자동차 새로 샀니? 한눈에 봐도 비까번쩍하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거슬리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오히려 익숙하고 편하셨나요? 국립국어원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를 선정했습니다.

단풍놀이 다녀왔어?

상미

요즘 너무 바빠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본 게 다야.

고수부지는 일본식 한자어야.

대신 **둔치**라는 우리말도 있어.

상미

에이, 고수부지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걸?

다반사도 일본어!

예삿일이라고 해 줄래?

상미

.....

상미

그나저나 올해 **망년회**는 어디서 하지?

망년회가 아니고 **송년회**!

상미

그게 그거지!

우리말과 일본어가 어떻게 같니?

상미

너 **유도리** 없이 계속 잔소리할 거야?

쿠사리 좀 그만 줘.

윙통성! 그리고 쿠사리가 아니고 **핀잔**이라고요.

널 핀잔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주 일본어 투 용어를 쓰면 편하고 친근한 우리말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상미

그렇겠다.

별생각 없이 쓰다가 입에 배었나 봐.

우리 같이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 쓰는 습관을 들여 보자!

상미

좋아!

우리말을 사랑하는 내 친구

정말 **간지**……아니, **멋지다!**

우리 일상 속에는 몰라서 썼거나, 알면서도 무심코 쓰던 일본어 투 표현이 많습니다. 일본어 투 표현을 너무 많이 쓰면 우리 생활과 정서에 어울리는 우리말 표현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소통하려면 우리 일상에 스며든 일본어 투 표현 대신 우리말로 바꿔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일본식 한자어 (20개)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망년회	송년회	거래선	거래처
	견습	수습	종지부	마침표
	모포	담요	대절	전세
	고수부지	둔치	도합	합계
	구좌	계좌	보합세	주춤세
	노견	갓길	불입	납입
	가불	선지급	고참	선임
	가처분	임시 처분	다반사	예삿일
	마대	포대/자루	수취인	받는 이
	익일	다음 날	잔고	잔액

일본식 음차어 (30개)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모찌	찹쌀떡	쓰키다시	겉들이찬
	유도리	용통성	아나고	붕장어
	나가리	무산	가라	가짜
	나와바리	구역	간지나다	멋지다
	단도리	단속/채비	무데뽀	막무가내
	땡땡이	물방울	이빠이	많이/가득
	만땅	가득 (차다/채우다)	곤조	고집/근성
	쇼부	결판	기스	흠/흠집
	와사비	고추냉이	분빠이하다	나누다/각자내기하다
	찌라시	전단지/광고지	사시미	생선회
	가오	체면/무게	와꾸	틀
	쿠사리	핀잔	지리	맑은탕
	노가다	막노동/막일	뽀록나다	들통나다
	대빵	대장	비까번쩍하다	번쩍번쩍하다
	나시	민소매	뽕사리	실수/음이탈/헛발질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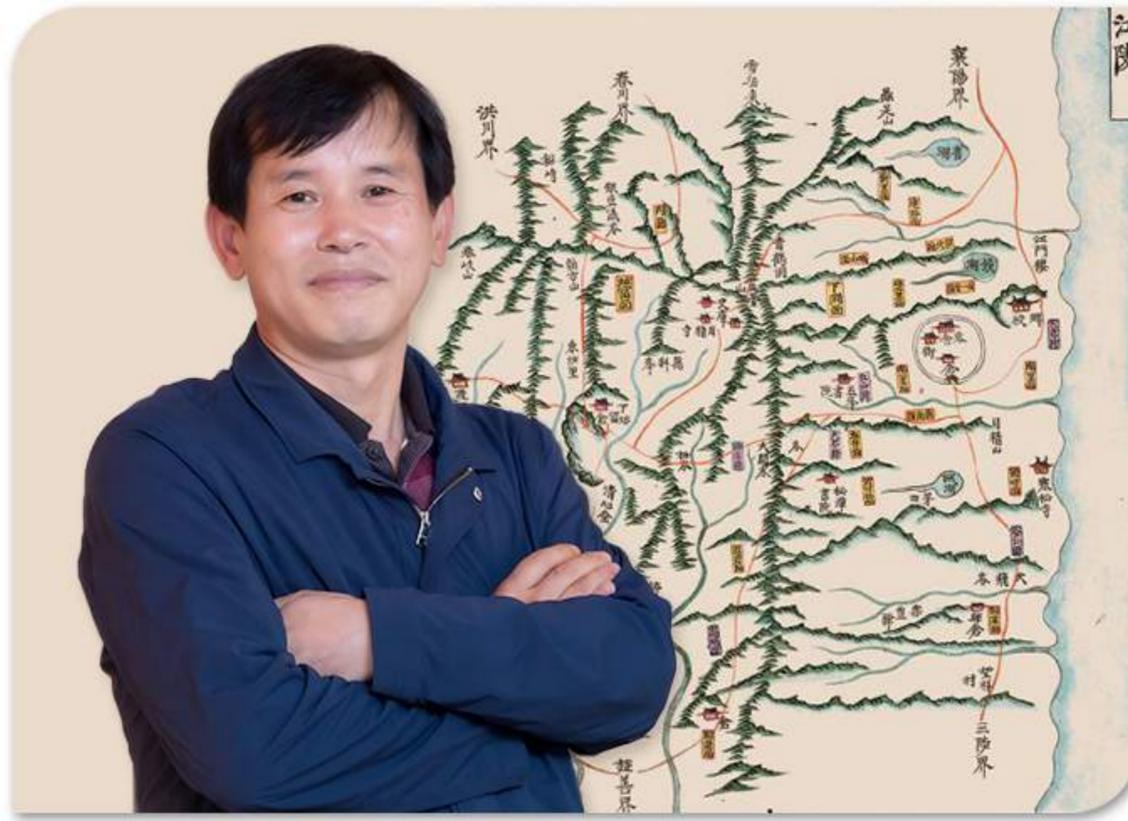
우리말, 그리고 사람

우리말 땅이름도 지켜야 할 역사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학예연구사

🏠 ▶ 궁금한우리말 ▶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기봉 학예연구사가 땅이름을 검토하며 슬쩍이라도 본 땅이름은 30만 개가 넘는다. 그 많은 땅이름을 들여다 보고 정리하는 동안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고 부르지 않아 사라진 우리말 땅이름을 향한 미안함. 그 마음은 우리말 땅이름을 되살리고 싶다는 바람이 됐다.



사라진 땅이름에 한없이 미안해

이기봉 학예연구사는 옛 땅이름에 관심이 크다. 관심은 그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고지도를 누리집에 올리는 일을 담당하며 시작됐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전문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의 옛 땅이름을 정리한 《고지도를 통해 본 지명 연구》 총 9권을 편찬했다. 한글학회가 1960년대부터 펴낸 《한국지명총람》(총 20권)과 일제가 만든 《조선지지자료》에서 옛 땅이름을 찾아 현재 땅이름과 비교해 정리했다.

“한글학회에서 만든 《한국지명총람》이 없었다면 결코 이 책들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나라의 옛 땅이름이 정리되어 있어 지명 연구서를 편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 올해 완간한 <고지도를 통해 본 지명 연구>

옛 땅이름 중 우리말 땅이름들을 살핀 이 책의 이름으로 출판사에서는 ‘그리운’을 밀었지만, 그는 사라진 우리말 땅이름 앞에서는 ‘슬픈’ 감정이 절절하여 이 제목을 고집했다. 책에는 땅이름 속에 파묻혀 지낸 오랜 시간 동안 느낀 점과 땅이름에 대한 기대를 촘촘히 새겼다.



100년 전에는 어떻게 불렀을까?

이기봉 연구사는 사라진 우리말 땅이름에 왜 그 자신이 그토록 슬픔을 느끼는지 들려주었다.

“서울 송파구에 백제 때의 거대한 유적인 풍납토성이 있죠. 과거에는 ‘바람드리’라고 불렀던 곳인데요, ‘바람이 잘 부는 들’이란 뜻이지요. 이름만 들어도 동네의 특징이 가늠되죠? 이를 한자 바람 風(풍) 자와 들일 納(납) 자를 써서 風納(풍납)이라 표기했는데, 언젠가부터 행정리”의 이름을 표기한 한자를 그대로 읽어 ‘풍납’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 부르니 이곳이 바람이 잘 부는 들이란 것을 더 이상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됐죠. 본래 땅이름이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입말로 전해 오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표기된 한자의 소리로만 읽다 보니 원래 땅이름에 깃들어 있던 뜻을 알 수 없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1) 행정리: 행정 단위의 하나

전라도에는 1900년대까지 ‘숲실’, ‘소구섬’, ‘푸르리’ 등 우리말로 불리던 마을이 있었다.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이곳을 어떻게 부를까? 안타깝게도 어여쁜 우리말 땅이름은 모두 사라졌다. 숲실은 임곡동(林谷洞), 소구섬은 우이도(牛耳島), 푸르리는 초촌리(草村里)로 표기하고 한자어로 부르고 있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소지인 서울시 서초구의 옛 이름도 소개했다.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이 넘도록 출근 땅이름을 정리해 왔으니 이 정도면 숙명이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다.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땅이름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100여 년 사이 전국에서 사라져 버린 땅이름이 다 애뜻합니다. 그 많은 이름들을 정리하는 동안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도저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담긴 땅이름을 방치해 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털어 내고 싶었거든요.”

그는 지난 2016년 개인 저서인 《슬픈 우리 땅이름》을 펴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들은 서초라고 하지 않고 ‘서리풀이’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불렀어요. ‘서리풀이’에서 ‘서’는 瑞(상서서) 자에서 소리를 빌리고, 풀은 草(풀 초) 자에서 뜻을 빌려, 서리풀이를 瑞草(서초)라고 표기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서리풀공원이 있는데요, 옛날에 쓰던 우리말 땅이름이 되살아난 좋은 사례예요.”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바꿨다는 오해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많던 우리말 땅이름이 사라져 버린 이유가 궁금해졌다. 이기봉 연구사에 따르면 현재는 봉화 ‘닭실마을’, 안동 ‘내앞마을’ 등을 제외하면 우리말 땅이름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 지역의 특성을 짐작하기에 쉽고 부르기도 편한 우리말을 두고 왜 어려운 한자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

“흔히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일부러 우리말 땅이름을 없애고 한자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조선 시대부터 그랬어요. 일본인들이 살던 소수 지역에만 일본식 땅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해방 후에는 일본식 땅이름을 모두 바꿔 버렸어요. 그런 이유보다는 일제 강점기 이후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말 이름이, 한자의 소리 이름에 밀려났습니다.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했어도 소리로 읽는 한자 읽기 습관 때문이지요.”

그는 태어난 땅에서 평생 사는 것이 일반적이던 과거와 달리, 산업화를 거치며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고향의 우리말 땅이름은 알고 있어도, 타지에서는 그곳 토박이들이 쓰는 땅이름이 아니라 한자의 소리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 지명에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이기봉 연구사는 모든 행정 지명을 우리말로 바꿀 수 없겠지만, 2014년부터 시행한 도로명 주소 제도를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도로명 주소 제도를 시행할 때는 ‘오랫동안 입에 익은 말을 왜 바꾸느냐’라고 하며 반대가 심했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지요. 도로명 주소 덕분에 부활한 우리말 땅이름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송파구 풍납동 곳곳에 ‘바람드리길’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이런 좋은 사례를 본받아서 특히 새로 생기는 지명에는 우리말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독도? 원래 이름은 독섬!

고지도 지명 연구를 해 온 학자로서 이기봉 연구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울릉도에 있는 마을이나 섬 이름을 우리말로 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울릉읍 죽도길을 뗏섬길로, 서면 구암길을 굴바우길로, 북면 현포길을 가문짜지길로 바꾸자는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 영토 문제가 있는 만큼 옛 우리말 이름을 최대한 되살리자는 이야기다.

“과거에는 독도를 ‘독섬’이라고 부르고,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獨島(독도)나 石島(석도)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독섬의 한자 표기가 獨島(독도)라는 것을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여깁니다.



▲ 독섬의 모습

울릉도 옆에 한자 표기로 竹島(죽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 토박이들은 ‘뗏섬’ (대섬)이라고 부릅니다. 뗏섬(대섬)과 竹島(죽도)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독섬과 獨島(독도)도 같은 섬입니다.”

그는 학자들만이라도 옛 울릉도 관련 자료에 나오는 獨島(독도)와 石島(석도)를 인용할 때 조상들이 부르던 우리말 이름대로 ‘獨島 [독섬] 혹은 石島 [독섬]’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자는 그대로 표기하되 옛 이름이 독섬이었다는 사실은 함께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독도 영토 분쟁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독도’라는 이름도 옛날 사람들이 부르던 우리말 이름인 ‘독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이다.

“제 자녀 세대들은 우리말 땅이름을 거의 모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표기된 한자 소리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 지명만 알죠. 우리말 땅 이름도 우리 역사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도 편한 우리말 땅이름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이름에는 생명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자꾸 부르다 보면 우리말 땅이름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글: 정성민
사진: 김장현, 국립중앙도서관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 ▶ 놀라운우리말 ▶ 우리말을여행하다

최근 한글날을 맞아 새로 만든 한글 글꼴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573돌 한글날에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과거 을지로 골목에 즐비하던 간판 글씨에서 영감을 얻은 '을지로체'를 공개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을지로의 분위기를 담아낸 글꼴 전시라니, 호기심이 일어 가 보지 않을 수 없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을지로에서 <을지로체: 도시와 글자>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을지로체는 1960~1970년대 을지로 공구거리 간판에 많이 쓰이던, 간판 장인들이 함석판이나 목판 위에 붓으로 쓴 글씨를 참고해 만든 글꼴이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10월 8일 전시장을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손으로 직접 쓴 옛날 간판 사진들. 전국을 여행하며 수집했다는 간판 사진들이 전시장 벽면과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서점, 목욕탕, 부동산, 공구점 등 다양한 옛 간판들과 마주하니 그 자체가 도시의 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투박한 글꼴은 복고풍의 정감이 넘친다. 올해 열풍을 일으킨 '신복고(뉴트로)' 문화 덕분일까? 깔끔하고 화려한 현대식 간판보다 더 호감이 간다.



체험관 한가운데 마련된 자판에 글을 입력하면 벽에 설치된 화면에 그 글씨가 을지로체로 적용되어 나타난다. 직접 글꼴을 이용하는 재미 때문인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한참 기다린 후에야 '가을날', '한글날'을 써 볼 수 있었다. 손으로 쓴 페인트 붓글씨 특유의 느낌을 살려서인지 소박하면서도 힘찬 느낌이 든다.



▲ 글을 입력하면 을지로체로 화면에 나타나는 체험관

을지로체 2,350자를 만든 과정이 영상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을지로체의 영감이 된 을지로 공구거리의 옛 간판들과 이 거리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들이 손 글씨 간판 장인들에 대한 기억을 들려준다. 영상을 보고 자리를 뜨려는데, 옆 자리에 있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글꼴 하나 만드는데 2,350자나 일일이 그려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라며 감탄한다.



▲ 배달의민족이 만든 을지로체 2,350자

디자이너가 하나의 글꼴을 만들려면 적게는 2,350자, 많게는 11,172자를 컴퓨터로 그려야 한다. 문장부호, 라틴 글자 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500자 정도를 그려야 하고, 다 그린 후에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다듬어야 완성된다. 관람객들의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눈앞에 놓인 수많은 글자들의 한 획 한 획에서 장인정신이라고 불려도 좋을 무게감이 느껴졌다.



▲ 을지로체 스티커와 명함

전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북적인 곳은 글꼴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체험관이다. 을지로체로 쓴 ‘축’, ‘복’, ‘멋’, ‘짱’, ‘헐’, ‘무명 장인’, ‘간판 없는 맛집’ 등 다양한 스티커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 누리 소통망[SNS]에 방문을 인증하면 무료로 을지로체로 쓴 명함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필자도 기념으로 이 재치 넘치는 한글 스티커를 몇 장 챙겨 왔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주니 반응이 좋다.

한명수 배달의민족 크리에이티브 총괄은 “익숙하고 정감 가는 도시의 풍경과 이름 모를 간판 글씨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곳곳의 감각을 담아 만든 서체를 선보여 한글 쓰기의 즐거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으니,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이름이 붙은 서체를 기대해 봐도 좋겠다. 배달의민족 누리집에서 을지로체를 비롯해 그동안 배달의민족이 만든 한나체·주아체·도현체 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최정호 선생도 만나 볼까?

과거를 재해석해 만든 을지로체를 만났다면, 이번에는 한글 글꼴의 탄생으로 떠나 보자. 글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전시가 있다.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글의 큰 스승> 전시회다. 이 전시의 <한글로 새로운 시대를 펼친 사람들> 구역에서 우리나라 1세대 한글 글꼴 개발자인 최정호 선생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 글꼴을 설계 중인 최정호 선생

최정호 선생(1916~1988)의 삶은 곧 우리나라 글꼴 디자인의 역사나 마찬가지이다. 그는 명조체, 고딕체, 바탕체, 굴림체, 궁서체 등 현재 우리가 즐겨 쓰는 수많은 글꼴을 만들었고, sm중명조, sm신명조, 애플고딕 등은 그의 원도¹⁾를 바탕으로 개발한 서체다. 그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부터 손으로 일일이 활자 원도를 설계했다. 1957년 마침내 한 벌의 활자를 완성했고, 그 활자로 《새 백과사전》, 《세계 문학 전집》을 펴냈다.

1) 원도: 모사 또는 복제 따위의 바탕이 되는 그림

전시회장에서는 광복 전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쇄 기술에 걸맞은 활자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최정호 선생을 만날 수 있다. 활자 설계에 평생을 바친 최정호 선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토록 다양한 한글 글꼴을 누릴 수 있다.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든다.



▲ <한글의 큰 스승> 전시회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큰 스승> 전시회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 전화: 02-2124-6200

• 전시기간: 2019. 9. 30. ~ 2020. 3. 8.

•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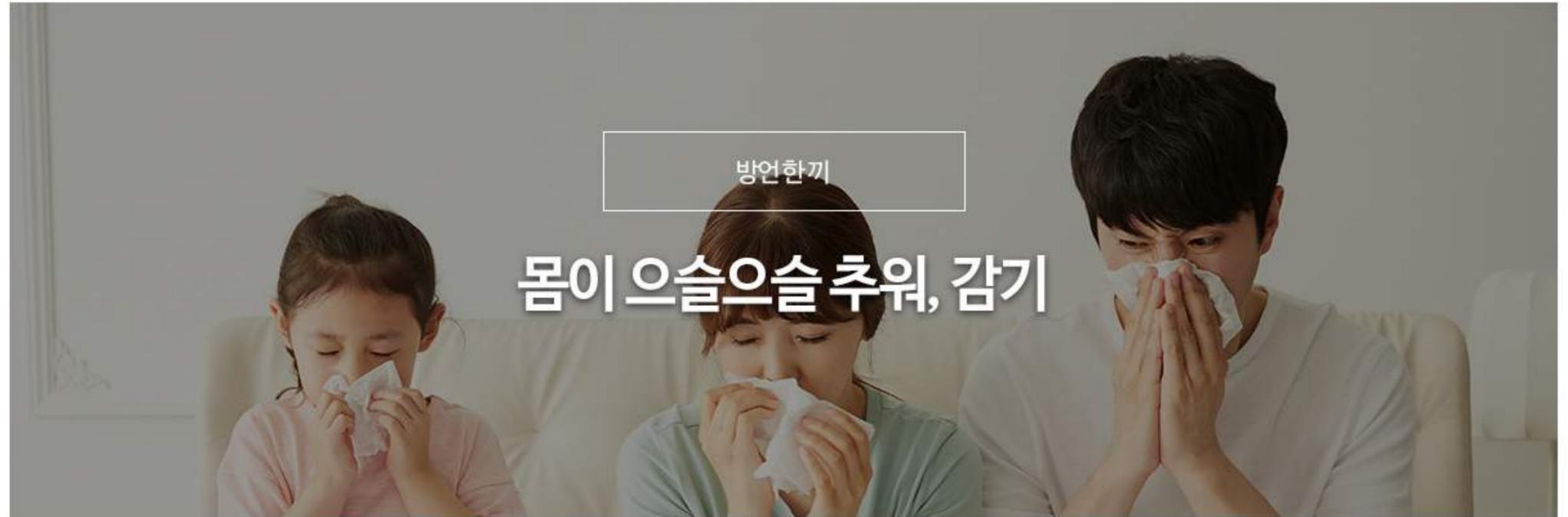
글: 정성민

사진: 정성민, 배달의 민족, 국립한글박물관, 최수인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 ▶ 쉬어가는 우리말 ▶ 방언한끼

몸이 으슬으슬 추워, 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맘때는 감기에 걸리기 쉽죠.
감기와 관련된 각 지역의 방언을 알아보을까요?





감기가 오려나
자꾸 재채기가 나와.

재채기

'재채기'의 경기 방언

“감기가 오려나
자꾸 재채기가 나와.”



그전에는 병원도 흔하달 안 혀서
고별정도는 병원 갈 생각두 안 했유.

고별

'감기'의 충남 방언

“그전에는 병원도 흔하지
않아서 감기 정도는
병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동삼에느 칩우니까데 **이불**으
잘 아니 덮우무 행불이 옹구마.



 **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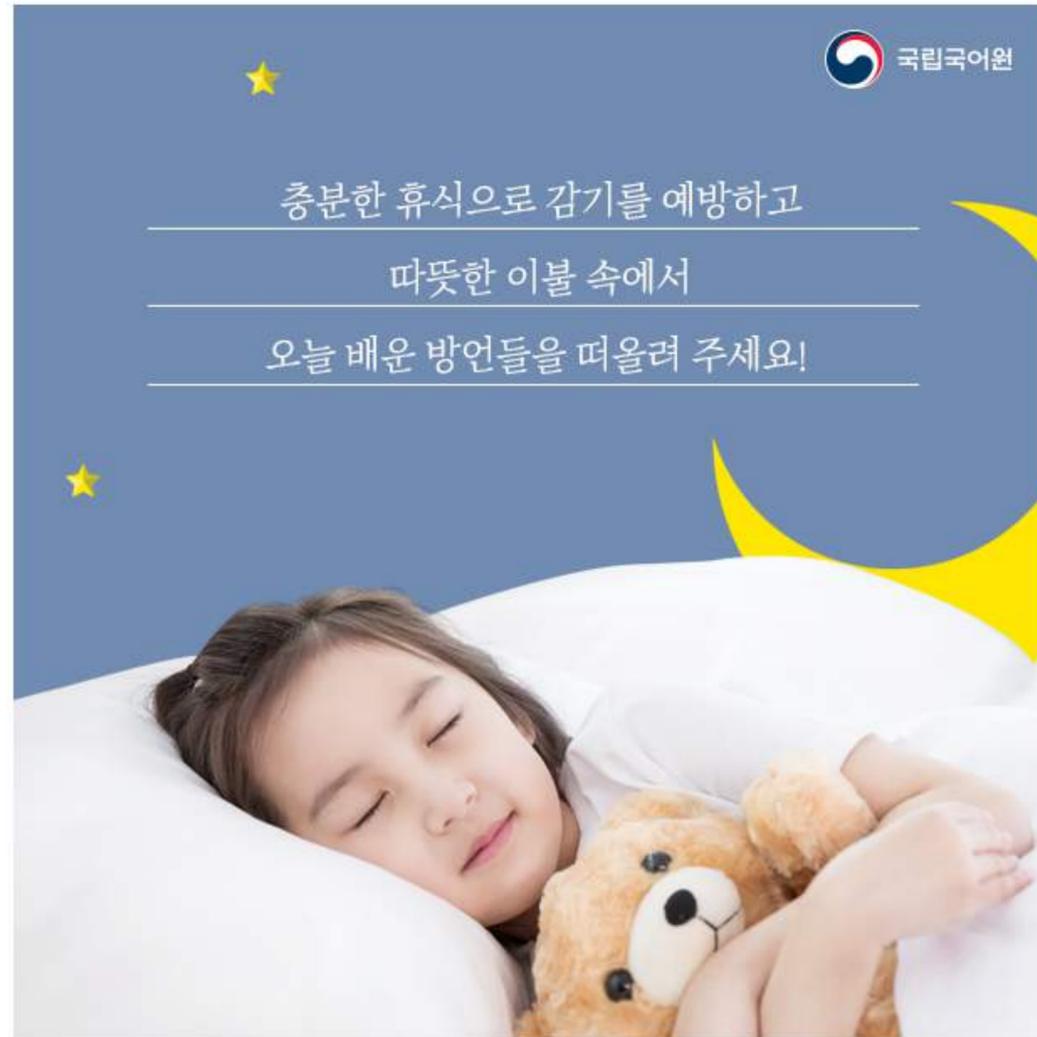
'이불'의 함복 방안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불을 잘 덮지 않으면
감기에 걸린다.”

충분한 휴식으로 감기를 예방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배운 방언들을 떠올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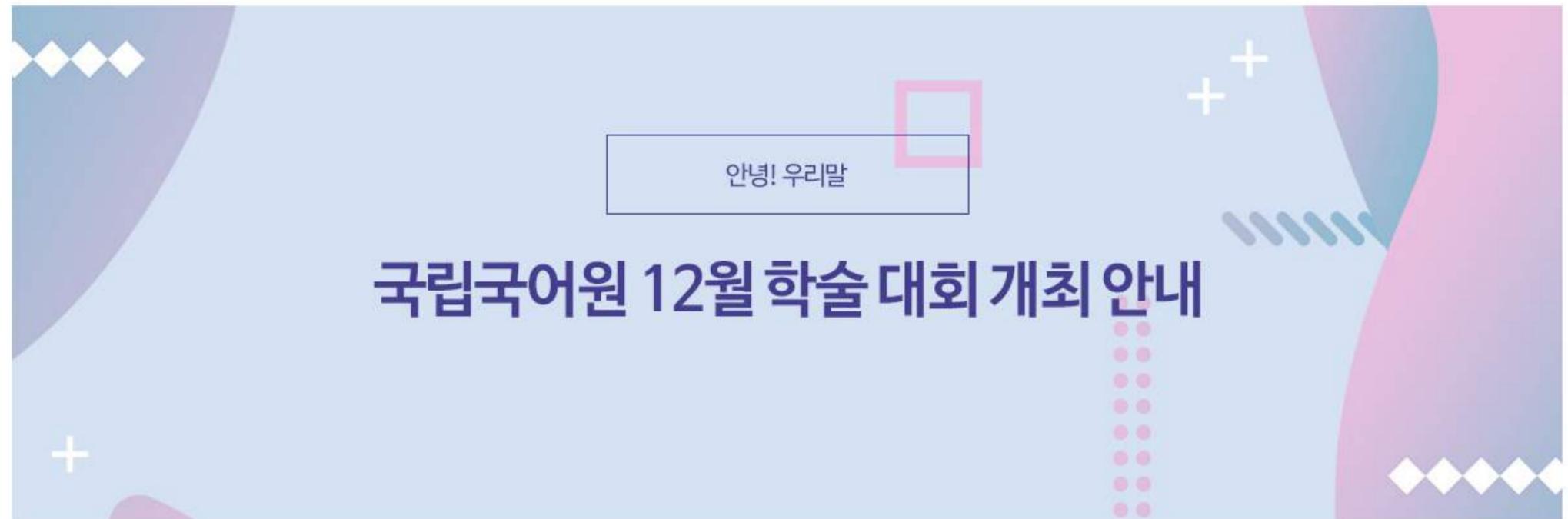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11월 26일



🏠 ▶ 궁금한우리말 ▶ 안녕! 우리말

국립국어원은 12월 국어 정책 학술 대회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2019년 국어 정책 학술 대회는 ‘국어 순화의 방법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12월 5일(목) 서울시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리며, 올해로 16회를 맞는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는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마련’을 주제로 12월 13일(금)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다. 12월 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참석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국어 정책 학술대회

- 주제: 국어 순화의 방법과 방향
- 일시 / 장소: 2019. 12. 5.(목) / 국립한글박물관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0:30~11:10	주제 1	조태린 (연세대)
	언어순수주의와 국어 순화의 몇 가지 문제	
11:10~11:50	주제 2	박주화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에서 새말까지	
13:30~14:10	주제 3	김민채 (연세대)
	자국어 순화 정책의 방향성 모색 - 프랑스와 퀘벡의 사례를 중심으로	
14:10~14:50	주제 4	김일환 (성신여대)
	다듬은 말의 언론 사용 현황 - 대규모 신문 말뭉치를 기반으로	
15:10~15:50	주제 5	정희창 (성균관대)
	국어 순화어의 공공성	
15:50~16:30	주제 6	조진수(전남대) 최선희(서울대) 구본관(서울대)
	말 다듬기의 대상 - 공공 분야 어려운 용어를 중심으로	
16:30~17:00	종합 토론	양명희(중앙대) 이경우(서울신문) 정한데로(가천대)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 주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마련
- 일시 / 장소: 2019. 12. 13.(금) / 페럼타워
- 세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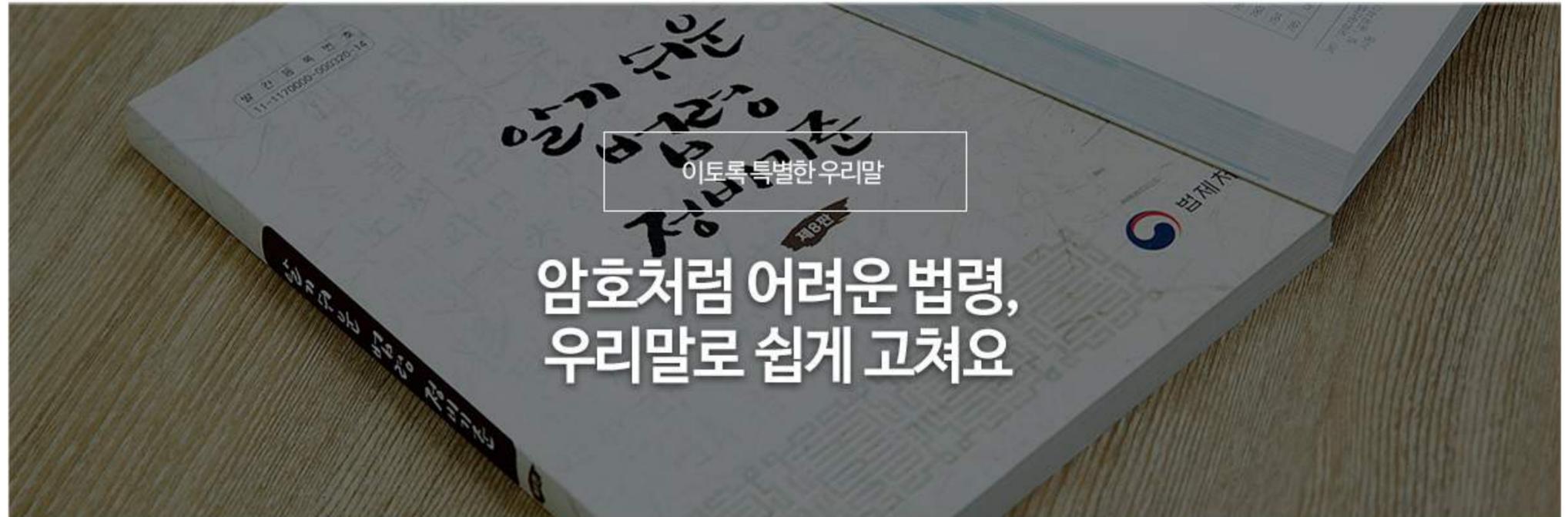
시간	내용	발표자
10:30~11:10	주제 1	최희수 (전 중국 연변대)
	전문용어 한자음 규범화에 대한 소견	
11:10~11:50	주제 2	신중진(한양대) 이성우(중앙대)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 및 자료	
13:30~14:10	주제 3	엄태경 (경희대)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원리와 방향	
14:10~14:50	주제 4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 연구원산업정책실)
	남북 정보통신기술용어의 표준화 방안	
15:10~15:50	주제 5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
	북한 경제 현황과 남북 경제용어 통합 방안	
15:50~16:30	주제 6	백해파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
	중국에서 남북중 전문용어 사용의 현황과 문제점	
16:30~17:00	주제 7	김병선 (한국학중앙연구원)
	통일인가 표준인가 - 컴퓨터 용어 남북 통일안(1996)의 회고와 전망	
17:10~17:40	종합 토론	이현주(인천대) 양수경(서울대) 한용운(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 > 궁금한우리말 > 이토록 특별한우리말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법을 모르면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누구나 알기 쉽게 쓰여야 한다. 전문가만 아는 법은 전문가만을 위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알기 쉬운 법을 만드는 일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법령에 쓰이는 용어들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이유이다.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법령 곳곳에는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로 규율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법제처에는 '알기 쉬운 법령팀' (이하 알법팀)이 있다.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다듬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쉽표, 마침표.>가 6명의 정예 요원을 만나 봤다.



▲알기쉬운법령팀: 왼쪽부터 정선임 사무관, 이경아 주무관, 박미영 학예연구사, 김종훈 팀장, 양지호 사무관



정책을 담는 그릇, 법령

‘사양서, 현훈, 가료, 난백, 난황’ 무슨 뜻인지 아는지? ‘仕様書, 眩暈, 加療, 卵白, 卵黃’ 이렇게 한자로 써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지금껏 우리 법령에서 수시로 보아 오던 말들이다. 이들을 ‘설명서, 현기증, 치료, 흰자, 노른자’라고 하면 어떤지? 이렇게 바꾼 이들이 바로 법제처 알법팀이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에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면 공공 부문에서 쉬운 언어를 써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여 ‘알법팀’을 신설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법령 정비의 기본 원칙은 ‘되도록 쉬운 용어,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자’는 것입니다. 옛날 법전을 펼쳐 보면 조사 빼고는 온통 한자투성이였어요. 그나마도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가 많아서 어지간한 한문 실력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읽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2006년부터 꾸준히 정비해 온 덕에 지금은 법령문의 95% 이상이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적었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말 다듬기가 없는 한글화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다’에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한글이다’로 바뀌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문법에 어긋난 표현들을 쉬운 말, 바른 문장으로 다듬어야 비로소 알기 쉬운 법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알법팀은 어려운 말들을 국민이 일상에서 쓰는 익숙한 우리말로 바꾸고, 이중 부정문, 비문 등 읽기 힘들거나 복잡한 문장도 간결하게 고치고 있어요.”



한자어·일본어 투·어려운 문장?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정비하고

알법팀은 국어 전문가와 법 전문가가 함께 일한다. 국어 전문가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좀 더 쉬운 용어, 바른 문장으로 바꾸는 일을 맡는다. 정선임 사무관, 이경아 주무관, 박미영 학예연구사가 그들이다. 하지만 법령은 그 나름의 체계와 논리, 상위법이나 타 법과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무작정 쉬운 용어로 바꿀 수도 없고, 일상의 문장으로 바꾸기도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면서 이끌어 가야 하는 이유이다. 김종훈 팀장, 양지호 사무관, 최혜욱 주무관이 그들이다.

알법팀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전 차단. 법제처는 각 정부 부처에서 발의한 법령 제·개정안을 심사하는 곳이다. 국회로 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모든 법령안은 법제처로 모이게 되는데, 현재 모든 법령안은 알법팀에 전달하여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어려운 용어나 잘못된 표현을 차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1,162건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870건이 반영되었다.

다음은, 사후 정비. 알법팀은 18개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법령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각 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팀이 생긴 지난해 여름부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용어 기준으로 1,500여 건이나 정비하는 성과를 이뤄 냈다. 정예 요원이 아니라 특수 부대가 아닌가 싶다. 고되지 않을까?

“70년 동안 쌓인 법도 많고, 새로운 법도 계속 만들어지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쉽게 다듬어 놓으면 당장은 물론, 다음 세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보람이 크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일이 거든요.”



점점 넓어지는 알기 쉬운 법 만들기



▲왼쪽부터 김형연 법제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소강준 국립국어원장

지난 10월 7일에는 법제처, 국립국어원, 국회사무처가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① 일본어 투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 마련, ② 공통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 추진 및 정보 공유, ③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④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알법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처럼 국민과 접촉이 잦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부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요. 업무 협약을 맺은 만큼 국회 법제실에서도 용어나 문장 검토 과정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규칙 등을 만들 때 쉬운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져요. 산림청이나 국방부 등 자체적으로 용어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알법팀 사람들은 그런 연락이라면 언제나 반갑다고 한다. 법령은 쉽게 써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점도 많다. 때로 “우리는 불편하지 않는데 왜 고쳐야 하느냐?”며 알법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귀찮아하는 일부 부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때는 속상하죠.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니깐요. 하지만 다행히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지난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을 쉽게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셔서인지 정부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것 같아요. 저희가 정비한 용어가 좋다고 해 주시는 국민들과 먼저 도와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처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맙고 힘이 납니다.”

생각해 보니, 알법팀이 바라는 세상은 알법팀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종 임금은 글자를 알지 못해 정보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펴지 못했던 백성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만드셨다. 한글 창제에 담긴 이러한 뜻을 가장 멋지고 알차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 알법팀에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글: 정성민
사진: 김영길

알기 쉬운 법령팀: 김종훈 팀장, 양지호 사무관, 정선임 사무관, 이경아 주무관, 박미영 학예연구사, 최혜욱 주무관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찰나의우리말

존댓말을 들으며 진짜 알아야 할 사실

🏠 ▶ 놀라운우리말 ▶ 찰나의우리말

박사를 마치고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의외로 강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필자에게는 출석을 부르는 일과 강의 전후에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출석을 부르려면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런데 다 큰 대학생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려니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 출석을 불렀다. '김네모 씨, 이세모 씨' 이렇게 말이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몹시 어색해했다. 게다가 와르르 웃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양해를 구한 후에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써 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몹시 어색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혼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마치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처럼 궁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네모, 이세모'처럼 이름만 부르게 되었다. 나만 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학생들과 강의 이외의 시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존댓말이 문제였다. 강의 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존댓말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강의 중에 학생이 한 질문에 답을 할 때도 존댓말을 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의 전후에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문제였다. 대학생들이니 존댓말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존댓말을 썼더니 학생들이 몹시 불편해했다. 더 큰 문제는 거리감을 느낀다는 데 있었다. 여러 번 만났는데도 계속 존댓말을 썼더니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을 편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학생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강의 중이 아니면 수강생들에게는 존댓말을 쓰지 않게 되었다.



높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국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필자처럼 높임말과 관련된 마음속 줄다리기를 경험했을 것이다. 존댓말을 쓰자니 거리감이 생기고 존댓말을 안 쓰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존댓말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일상의 줄다리기는 시시때때로 벌어진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삼사십 년 만에 만남,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를 만났을 때가 그렇다. 말을 놓아야 할지, 높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 만나자마자 대뜸 말을 놓는 친구에게 딱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지만 그렇다고 같이 말을 놓자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도저히 말이 놓아지지 않아서 말을 계속 높이면 그 친구는 어색해하며 거리감을 느낀다. 서로 어색해지니 그 자리가 즐거울 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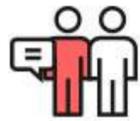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다. 한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각각 말하는 사람과 문장의 주어에 등장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과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등장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상대 높임은 문장 안의 성분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문장 밖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즉,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공적인 상황인지 사적인 상황인지 등이 상대 높임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말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상대 높임

세 가지 높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상대 높임이다. 문장 성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더더욱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과는 달리, 상대 높임은 상대에 맞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말이 완성되지 않는다. 한국어로 말을 적절하게 끝맺으려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를 따져서 상대 높임을 결정해야만 한다. 만약,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한국어로는 아주 간단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밖에 눈이 오는 장면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최대치는 ‘눈이 오-’까지이다. 적절한 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눈이 와’라고 할지, ‘눈이 와요’라고 할지, ‘눈이 옵니다’라고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말의 거리, 말의 계급

이렇듯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가 언어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한국말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실현한 것과 듣는 사람이 기대한 것이 일치한다면 물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면 대화는 결코 즐거울 수 없다. 초면에 대뜸 반말을 쓰면 언제 봤는데 반말인가 화가 나는 이유도, 이제는 말을 놓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존댓말을 쓰면 거리감이 느껴지며 자신을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서운해지는 이유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생긴 이 거리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어의 높임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오해를 만들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존중해 주고자 쓴 존댓말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고, 친근함을 드러내고자 쓴 반말이 무시하는 태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선택하여 실현한 높임법을 들으며, 자신에 대한 대우에 더 신경을 쓰느라 말의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일이 흔히 일어나기도 한다.

더욱이 상대에게 사용하는 말의 등급이 상대와 나와 의 계급 차이 혹은 신분 차이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존댓말을 하는 사람은 낮은 계급 혹은 낮은 신분이고 반말을 하는 사람은 높은 계급 혹은 높은 신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듣는 사람을 ‘윗사람’, 반말을 듣고 존댓말을 하는 사람을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이 주는 ‘아랫사람’, ‘윗사람’ 의식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존중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통 ‘싸가지가 없다’거나 ‘예의가 없다’는 말은 나이가 같거나 많은 사람이 나이가 같거나 적은 사람에게 한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싸가지가 없다’거나 ‘예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싸가지 없는 일’이 된다.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늘 싸가지가 있거나 예의가 바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왜 싸가지 없다거나 예의 없다는 말은 늘 나이가 같거나 많은 사람이 나이가 같거나 적은 사람에게만 해야 하는지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 말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한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을 한 어린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 된다.



‘윗사람’이 아니라 ‘더 어른’

사실, 존댓말을 들으며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윗사람’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어른’이라는 사실이다. 존댓말을 듣는 사람이 존댓말을 하는 사람보다 더 어른이라면 그만큼 더 어른스러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존댓말을 쓰는 상대는 존댓말을 통해 당신이 더 어른이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당신에게 존댓말을 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가 당신보다 자신이 더 어른스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보다 어른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상대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미성숙한 사람에게 왜 미성숙한 판단을 했냐고 따지는 일이야말로 미성숙한 일이니 반말을 들었다고 화를 낼 이유도 없다.

결국, 상대방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할 자신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반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또 같은 이유로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존댓말이란, 존댓말을 듣는 내가 존댓말을 하는 상대자보다 더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게 하기 위해 마련된 언어적 장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존댓말의 기능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존댓말과 반말로 빚어지는 갈등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대화 상대자로부터 반말을 듣는 편이 더 속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존댓말을 들으며 상대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반말을 들으며 상대보다 덜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짐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어 사용자들 모두가 존댓말의 기능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반말의 사용은 훨씬 축소될 것이고 존댓말의 사용은 훨씬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존댓말로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언어의 전통이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다면 언어를 바꾸어야 할까, 가치를 바꾸어야 할까?

글: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 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우리말의
재구성

일일 강좌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취미 활동에 긴 시간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루 중 몇 시간만 투자해 취미거리를 배울 수 있는
일일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 일 강 좌 는
'원데이 클래스'를 다듬은 말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쉽고 간단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강좌를 뜻합니다.



내게 꼭 맞는 취미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듯
우리에게 꼭 맞는 우리말로
생기 넘치는 하루를 만들어 봐요!

